

일상적 삶

La vie quotidienne

Jean Grenier 저, 권오룡 옮김, 청하, 1988.

김봉균

장 그르니에의 「일상적 삶」은 우리 일상인 모두의 마음자리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다. 이 책의 제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흔히 마주치게 되는 여러 경험의 항목들이다. 여행·산책·술·담배·비밀·침묵·독서·수면·고독·향기·정오의 시간·자정의 시간 등 12가지 제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부각된 사색의 제목들이다.

이 책의 독자들은 여기 담긴 글의 내용이 일상성의 이름으로 쓰인 비밀상적인 것들로 충만해 있음을 이내 발견하게 된다. ‘일상의 비밀상성’이라는 역설로 구축된 이 책의 진술방식이 분석으로 일관되어 있음은 서양 지성사, 예술사의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한다. 특히 철학적 사색, 예술적 직관과 그 서정, 종교적 명상으로 교직된 이 책의 문체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 파스칼의 「팡세」, 몽테뉴의 「수상록」, 루소의 「고백록」, 톨스토이의 「인생론」과 유사한 맥락 안에 있다. 그 내포와 질적 수준, 지향성의 차원은 다른 문제다.

장 그르니에의 글은 가치 중립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개방성과 자유 연상에 의탁한 그의 문체는 헬라와 히브리, 아랍과 인도와 러시아, 바빌로니아와 중국 등 그의 독서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경험과 상상력이 미치는 세계 일체를 포괄한다.

여행 항목에서는 정의내리기로 실마리를 푼다. 이 진지한 실마리 풀기는 여행의 물리적 양상으로부터 존재론적 천착에 이르기까지 다면성을 보인다. 그중에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은 여행의 시간성과 공간성, 여행의 패러독스다. “개인은 자신의 몸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 장소에 존재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여행하지 않기 위해서 여행한다.”는 철학적 성찰이 돋보인다.

세계 개방적이고 열린 마음의 저자는 굴원(屈原)의 「이소(離騷)」, 바빌론 노래 「유배의 시편」, 단테의 「신곡」, 역사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가림 없이 떠올린다. 도달한 공항에서 다시 떠나기를 요구한 ‘오를리 공항의 미친 여자’가 심금을 뒤흔들어 놓고 만다. “신이 도처에 존재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가?”라고 한 장 그르니에의 물음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의 그 「쿠오 바디스」와의 편치는 얼마만큼인가? 답 올기 전에 주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의 통회와 전도 여행에 가슴을 치는 어리석은 우리 독자들. 우리 모두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알아뵈지 못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일 뿐임을 새삼 일깨우는 장 그르니에의 주제 항목이 ‘여행’이다.

장 그르니에는 산책의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강제적인 산책에서 시작하여 이성, 사회성, 자연과의 융합과 관련된 산책과 철학적 산책에 이르기까지 산책의 의미는 다양하다. 이중 특히 감명을 주는 것은 강제적인 산책과 철학적인 산책이다. 감옥의 경우처럼 시키는 사람이 있는 산책의 피동성이 아픔을 준다. 소크라테스·아리스토텔레스·에피쿠로스·칸트·니체·보들레르·루소·키에르케고르가 함축했던 산책의 철학적 의미를 장 그르니에는 극히 간소한 언어로 대비해 보인다. “산책이란 우리들이 찾을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해 주는 수단인 아닐까?”라고 그는 ‘산책’을 궁극적으로 뜻매김한다.

저자는 매우 시정(詩情)어린 필치로 동서 고금의 술마시기와 그 분위기를 유창하게 묘사해 보인다. 여기에 동원된 언어는 ‘영감의 원천’, ‘충만한 자연’, ‘흐릿한 달빛’, ‘몽상’, ‘환상’, ‘새하얀 벽에 투사된 그림자’들이다. 그

리고 마침내 그에게 술은 ‘순수하고 단순한 환희의 대상’이다. 그의 술은 “술 취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이나 한국 기독교의 교리와 무관한 곳에 있다.

저자는 담배의 위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매우 활동적인 유럽인은 종종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나폴레옹 1세와 3세가 영토를 확장한 것, 넬슨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승리한 것들도 그들이 담배를 즐긴 때문이었던가에 대하여는 확신을 표명하지 못한다. 문제는 육체를 파괴하고, 지성을 공략하고, 나라를 좀먹는다는 발자크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담배의 위력에 대하여 속수무책이라는 점에 있다.

비밀은 ‘분리’에서 비롯되며, 카스트 제도가 그 전형이라 한다. 궤테는 세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성적이라는 한계에 얽매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비밀이라고 한다. 그가 본 비밀은 인간을 둘러싼 자연에 속한다. 이에 반하여, 모세의 비밀은 인간을 초월하는 절대자에 속한다. 그는 신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수 없었고, 또 보려고도 아니했다. 이는 신과 관련하여 스스로를 알아내려는 것이다. 저자는 간접적, 직접적인 계시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실증주의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무엇인가? 장 그르니에에게 묻고 싶은 말이다.

저자는 침묵의 문제에 대하여 “이 무한한 공간의 침묵이 나를 전율케 한다.”는 파스칼을 인용함으로써 탐구를 시작한다. 이 침묵의 대우주 안에서 그는 감명 깊은 침묵론을 펼쳐 보인다. “병어리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침묵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행한다. 입으로나 글로나 말하기를 삼가는 사람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돌은 자연적으로 침묵하지만, 정신 박약이는 그렇지 않다. 침묵은 의도적인 것이다.” 등 밀도 높은 사색의 언어들로 채워진 침묵론이다. 그는 기독교적인 태도와 침묵에 대하여도 분명한 견해를 피력한다. “살아 있는 존재의 침묵은 삶에 대한 부정이다.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말이 없으면, 침묵은 침묵을 부른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기독교

교적인 태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믿는 종교들은 보통 ‘신’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장 그르니에의 침묵론은 매우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침묵에 견디지 못한 『페스트』의 주인공을 통하여 까뮈는 하나님의 ‘침묵’을 참을 수 없어 했고, 사르트르는 ‘자유’를 선포했다. 그들은 2천 년의 이 ‘침묵’에 견디지 못한 ‘시간의 자식’으로 세속적 실존주의자들이다. 영원의 시공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저 ‘침묵의 역설적 뇌성’을 그들은 듣지 못한다.

저자는 독서의 단계·방식·목표·위험·기쁨과 이득 등에 대하여 세심한 분석력을 보여 주며, 세속적인 책과 성스러운 책 읽기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이야기한다. 그가 주목한 바 ‘정보획득·교육·기분전환’으로 요약되는 독서의 목표는 어느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성스러운 책과 세속적인 책의 공전에 대하여 의미 있는 시사를 한다. 선교사가 전수한 성경책을 집짓는 재료로 쓴 적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학적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판본과 종이의 질에 대하여만 논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문맹이 아닌 다른 문화권의 독서 대중에게도 깨우침을 준다.

수면에 관한 탐색은 심리적, 치료학적, 우주적, 스토아적, 이교적, 기독교적인 것으로 나뉘어 있다. 동·서양의 우주적 수면은 서로 다르다. 브라만교·불교와 도스토옙스키·니콜라스 드 크루즈의 수면은 다르다. 스토아적 수면은 알렉산더 대왕·황제 오톤과 카톤·아우구스투스·아리우스 등 역사적 인물들이 전쟁과 자살을 목전에 두고 깊은 수면에 빠졌던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교적인 수면은 휴식의 아버지, 가장 평화롭고 조용한 신, 고통받는 영혼의 부드러운 의사에 비유되어 있다. 저자는 스토아적 수면, 이교적 수면과 다른 기독교적 수면의 대목에서 어조를 가다듬는다. 기독교적 수면은 다시 깨어나리라는 약속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깊은 휴식이라는 것이다. 한 가련한 홀어미에게 “네 아들은 자느니라”고 하신 주님의 그 ‘수면’을 장 그르니에도 놓치지 않고 있다. 그는 수면과 깨어남의 실존적 의미를 매우 함축적으로 진술한다. “기도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자고 있

는 동안에 일어난다는 것은 가장 괴로운 훈련이다. 이것이 기쁨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괴로운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 평범한 수면 철학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다.

저자는 고독 문제를 피동적인 고립과 구분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고독은 ‘관계’나 ‘의사 소통’과 관련된 문제이며, 메아리가 주는 절망의 속성 해명에 로빈슨의 앵무새를 동원한다. 그는 렘브란트의 두 갈래 그림 이야기를 한다. 이 화가가 일생 동안 그린, 심각하고도 슬픈 이의 초상화와 동업 조합상인들의 모습 어느 것에서도 행복은 얼굴을 내비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화가인 그는 줄곧 고독했다. 그가 늙고 몰락한 인간의 고독에서 벗어난 것은 성경의 한 장면과 만나면서부터였다. 다음 대목은 장 그르니에가 쓴 이 ‘고독론’의 정수(精粹)이다.

그는 황혼의 창문 앞에서 명상에 잠긴 철학자처럼, 진정되어 있지만 아직도 고독하다. 그는 에마우스에서 교묘하게도 그가 스스로 잊어 버렸다고 믿었던 동반자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고독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수면’과 ‘깨어나심’을 믿는 이가 영원한 동반자와 진실로 만나는 이 순간의 충족감이 주는 감격을 장 그르니에는 알고 있다.

저자는 향기를 탐구하는 데 탁월한 식견을 발휘한다. 향기의 기능·보편성과 차이점·유용성·미학·변모에 관한 전문적 심미안까지 드러낸다. 그리고 그의 ‘향기론’에서 정채(精彩)를 빛내는 곳은 그 끝맺음 대목이다. “향기를 가장 잘 사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녀가 뿌린 향기를 들이마시고 있다.” 향기 중의 향기, 생명의 향기 이야기는 화룡점정이다.

저자는 ‘정오’라는 시각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관찰하여 보인다. 성당의 종소리가 12번 울리는 순간, 법정의 재판관들처럼 식탁에 앉아 계신 부모님 앞에 황급히 ‘출두’하여 ‘심문’을 받는 자신의 초상을 그린다. 다음 장면은

낮 12시에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다소 극적으로 그린 것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12시가 가까워졌을 때 공포에 사로잡힌다. 사무실은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다. 조그만 도시의 가게들은 빗장을 걸어 잠근다.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은행과 우체국은 10분 전에 출입문을 잠갔다.

숫자 앞에서 이상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에 관련하여 인간 속성을 상징하는 ‘환상의 숫자학’ 얘기가 대두된다. 7, 40, 3과 4, 약수의 총화 등에 대한 인간의 반응 양상이 소개된다.

저자는 또한 가장 평판이 좋지 않은 시각인 자정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일상적 삶’의 이야기를 끝맺는다. 자정에 대한 그의 사색은 매우 심미적이며 심오하다. 그에게 자정은 각자가 혼자 있다는 생각을 가장 심하게 하는 순간이며,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밤의 의미를 절실하게 표현한 한 대목을 보자.

우리들의 문명이 가진 특징 중의 하나는 빛의 증가현상이다. 뉴욕시는 밤을 제거해 버렸다. 가장 매력적인 폴리네시아의 섬들은 밤을 견뎌낸다. 즉, 이 섬들은 인공적인 불빛을 통해 나타나는 야간의 삶을 알지 못한다. 오늘날에 와서는 인간에 대한 매력이 자연에 대한 매력을 능가한다.

그는 또 예언자들이 대낮의 빛 속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다고 말한다. 기독교도들이 자기들의 신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찬미하기 위해서 대중을 끌어 모으는 사실에 의아해 한다. 자정의 종말적 의미와 새로운 시작의 의미, 진리 내포의 역설적 의미에 대하여 그는 말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일상적 삶」에서, 저자 장 그르니에의 탁월한 직관력과 분석력, 폭넓은 고급 교양과 지식은 물론 비범한 심미안에 놀란다. 그는 세계 개방

성, 진리 개방성과 다양성을 용인하는 열린 지성인이다. '일상의 비일상성'을 체험케 하는 이 책은 반복되는 일과와 함께 망각되어 가는 산업사회적 인간의 정체성을 새삼 되묻게 한다.

우리는 여기서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 토마스 엘리엇의 「황무지」(*The Waste Land*)의 에피그램을 떠올린다. 하이데거는 산업문명 이후의 이 시대를 '존재 망각의 밤', 엘리엇은 '황무지'라 했다. 그리고 볼프강 보르헤르트는 이 시대의 우리를 '이별 없는 세대'(*Generation ohne Abschied*)라고 하였다. 자기 정체성(self-identity)을 상실한 하이데거의 '일상인'(*das Mann*)인 우리는 부활의 소망마저 잃은 황무지의 주민이다. 참된 '만남'이 없으므로 '이별'이 없는 관계 파탄의 미아(迷兒)들이다.

이 책은 일상인에게 비일상성을 복원시키기에 공헌한다. 다만, 이 책의 독자가 '나의 스승이자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한 알베르 까뮈의 선언에 치우치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 아니다. 장 그르니에는 종교적 실존주의와 도전적으로 결별하고, 단지 세속적 실존주의와 영합한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의 이 저서는 가치 상대주의와 절대진리 사이에서 방황하는 영혼의 파스칼적 고투를 더 절실히 요구한다.



■ 김봉균 ■

1941년 경남 남해 출생. 서울대 국어과·법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한국 현대문학 전공. 문학박사, 문학평론가, 한국독서학회 회장, 세계한 민족 통일학회 준비위원장으로 활동. 현재 가톨릭대학 인문대학 학장으로 재직. 저서로 「문학 개론」, 「한국 현대 작가론」, 「한국소설의 기독교 의식」 등의 학술서적 및 「문학」, 「독서」 등 고등학교 교과서 외 다수.